

## 찬송가 301장 - 지금까지 지내온 것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 찬송가 246장 -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1.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2.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3. 내 주린 영혼 만나로써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되겠네  
이 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 (후렴)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살겠네)

2024년

# 추모 예배



# 추모 예배 순서

※ **예배 전 유의사항**

순서에 들어있는 ‘말씀나눔’은 같이 읽거나  
각자 가정 상황에 맞추어 고쳐서 해도 좋습니다.

개식사 ..... 인도자

지금부터 故 000 씨(아버지, 어머니)의 O주기 추모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 301장 ..... **다같이**

기 도 ..... **가족 중 한 사람**

성경말씀 ..... 요한계시록 21장 1-7절 (신약 419쪽) ..... **말은이**

-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 5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 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 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나눔 ..... ‘영원한 안식’ ..... **말은이**

찬 송 ..... 246장 ..... **다같이**

주기도 ..... **다같이**

# 말씀나눔

## 영원한 안식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이 세상 끝에 있을 일들을 요한 사도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성경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성경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종말’이 오면 어려움과 환란이 다가올 것이고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곤란한 일이 있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말을 사용하여 정말 큰 어려움이나 상대하기 힘든 곤란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종말은 성도이든 아니든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단이나 사이비종교에서는 준비하지 않은 종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비정상적으로 강조하여 잘못된 길로 피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말의 의미는 그들의 공포나 피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종말을 기쁨의 ‘소망’ 혹은 진정한 ‘안식’으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마라나타’라고 요한은 힘주어 선포합니다. 그 뜻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즉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기대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그 끝에는 우리의 수고를 칭찬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만나 기쁨의 잔치가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젊은 시절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무의미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 천국을 소망하고 산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일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생겼으며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오직 소망 되신 주님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상속받을 기쁨이며 소망입니다.